

Youngeun News

동행

12월

2025년 4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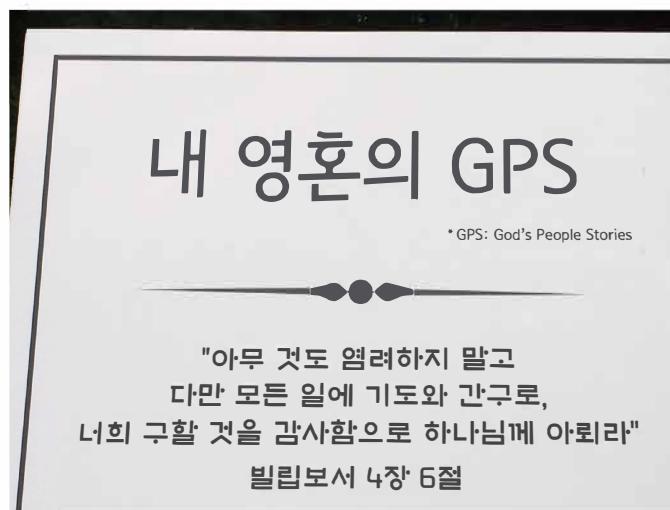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영은교회
www.young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내 영혼의 GPS”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지금, 내 영혼의 GPS는 어디인가요?
내 영혼의 GPS가 어디이기를 희망하시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빛이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1:1~2) 뜻이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 472호 / 2025. 12. 7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내 영혼의 GPS”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예수로 물들어갑니다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위국 기도회 운동의 역사 / 이찬양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차 향기의 여운을… / 서선이 권사

09 웹진 동행

가을 권사 수련회 / 박정옥 권사

감사와 은혜가 넘친 영아부 추수감사주일 이야기 / 김정미 교사

11 영은소식

2025 가을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인해 받은 은혜와 다짐 /

정영준 안수집사

교구별 찬송경연대회를 마치며 / 오신원 안수집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장미애 목사

2025년 복지부 사랑의 쌀 나눔 행사 / 이봉연 안수집사

이준희 목사 사임 / 윤정림 집사

성탄의 빛, 우리 마음에 다시 켜지다 / 김재원 집사

청년부 2026년 새 임원 선출 / 이기현(청년2부 회장)

2025년 하반기 장년신앙교육

2026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상담 실시 / 나필균 원로장로

한국교회역사탐방: 강경 & 익산 / 나영 집사, 이상의 은퇴장로

사라왁 쿠칭의 기독교 - 역사, 부흥, 그리고 선교의 현재 /

구용희 선교사

31 슬기로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32 교회안내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 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물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3~6)



클 | 이승구 담임목사

우리는 어떻게 예수로 물들어 갈 수 있을까요?

1) 은혜를 기억하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엡 1:3)

예수로 물들어가는 삶의 가장 확실한 근거이자 출발점이 되는 선포입니다. 예수로 물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복을 ‘주실 것’이라 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신령한 복’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모든 은혜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엡 1:4)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창세 전에’입니다. 이 응장한 우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남보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우

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시작을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그날 혹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 즉 창세 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묻고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내가 잘나서 혹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인 <예수로 물들어갑니다>의 가사처럼 “창세 전부터 택하사 성도로 불러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예수로 물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로 물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 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물들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토대,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은혜에 잠겨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2) 부르심에 순종하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4)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구원’에 멈추지 않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담 쌓고 산 속으로 들어가는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 없이 온전하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나님 없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로 물들어가는 것’은 이 ‘거룩’과 ‘흠 없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거룩은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내는가의 문제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올해 교회 주제가 <예수로 물들어갑니다>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말씀 삶으로 지키기 원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소서 1장 4절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가정에서, 가장 치열한 일터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은 어둠 속에 타협하며 죄책감에 눌려 있던 영혼을 깨우고, 잠자던 신앙을 일으키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변화의 힘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로 물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번

째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로 물들어가는 것’은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나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구별된 삶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3) 누리고 찬송하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5)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자나 죄를 용서받은 ‘피조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곧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일은 억지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못해 구원하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선택하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엄청난 자녀됨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쳐 주시는 바” (엡 1:6)

이 모든 은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들과 동일하게 보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주시려는 모든 복을 자녀 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안전하며 영원합니다. 이것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값을 치르지 않았고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랑을 누릴 뿐입니다. 예수로 물든 자는 자녀 된 신분을 날마다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6)

또한 자녀로서의 신분은 특권만이 아니라 찬송의 이유입니다. ‘예수로 물든 자’는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길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물듭니다. 우리의 자격, 공로, 노력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100%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일상 자체가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이 나올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

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의 찬송’입니다.

“어떻게 예수로 물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로 물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며,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 천이 염료에 담길 때 천이 스스로 색을 만들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염료 속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예수로 물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은혜에 나를 ‘맡기고’
거룩한 부르심에 나의 발걸음을 ‘맡기고’
자녀 삼아주신 기쁨에 나의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예수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국 기도회 운동의 역사¹⁾

1905년 7월 러일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드러내자, 한국 개신교회는 본격적인 항일운동에 들어갔다. 한국 개신교회의 첫 번째 구체적인 항일운동은 나라를 위한 위국 기도회였다. 서울 연동장로교회 청년회가 주축이 된 국민 교육회는 전국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 7월 연동교회의 국민교육회는 대한제국이 하늘의 보호를 받아 지구상에서 확실한 독립국이 되기를 원하여 “위국 기도문” 1만 장을 인쇄하여 전국에 반포하고 매일 하오 3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 운동을 개시했다.

일제가 보호조약의 마각을 드러내고 11월 9일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하자, 그 이튿날부터 상동감리교회 앱윗청년회²⁾ 감리교 청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가 태어난 영국 링컨셔(Lincolnshire)의 마을인 앱윗(Epworth)이라는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 앱윗청년회는 1889년 미국 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조직된 청년 신앙 단체이다. 이 단체는 감리교 청년들의 신앙 성장, 사회봉사, 지적 · 도덕적 훈련을 목표로 만들 어졌다. 한국 감리교는 20세기 초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 되면서 앱윗청년회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연합 위국 기도회가 열렸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넘어가는 판에 “꼴짱만 끼고 가만히 앉아서 골꽤나 화투만 하면서 나라 근심은 남의 일처

럼 도무지 개의치 않는” 바둑이나 두는 자들은 개와 돼지보다 못하다고 기도회로 모인 이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11월 15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오히려 위국 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보도 하였다.

국가 상실의 위기를 맞이한 당시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예수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 받아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식민지가 된 현실 앞에서 이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자, 지상의 나라는 무시하고 하늘의 영적인 나라만 추구하는 도피자,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로 나아가 충분한 군사지식 없이 의병으로 싸우는 무력자의 방법에 반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도자의 방법을 제시했다. 서울의 연동장로교회와 상동감리교회의 청년들이 주도한 기도회는 독립 국가형성이라는 당대의 정치 의제가 예언자적 신앙과 결합하면서 점화된 개신교 항일 민족운동의 첫 봉화였다.

한국교회는 130년 전 대부흥 운동의 재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맞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공동을 기도해야 할 때이다.[중략]

1) 육성득, 『한국교회 첫 사건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5), 664-675.

2) 감리교 청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가 태어난 영국 링컨셔(Lincolnshire)의 마을인 앱윗(Epworth)이라는 지명을 따서 만들어진 앱윗청년회는 1889년 미국 감리교(Methodist Episcopal Church)에서 조직된 청년 신앙 단체이다. 이 단체는 감리교 청년들의 신앙 성장, 사회봉사, 지적 · 도덕적 훈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한국 감리교는 20세기 초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되면서 앱윗청년회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차 향기의 여운을….



글 | 서선이 권사

겨울 공기 속에는 묘한 고요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도 그 속에 남은 따뜻한 온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쳐 간 자리마다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찻잔에 차를 가득 따르지 않고 모자라게 따르는 것은 차 향기의 여운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각자의 빈 마음에 주님 주시는 뜻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십수 년 영은 동행과 함께해 온 시간들은 저에게는 짧은 날에 글을 다듬던 열정을 다시 기억해내려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이틀 편집이 있는 날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온 나의 소중한 동역자들. 매달 가슴에 아련히 짚어지는 아름다운 글귀로 첫 장을 장식해 준 서현이 집사, 미소년의 얼굴로 빼딱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깊게 휘갈겼던 이숙경 기자, 잘못된 문장을 놓치지 않고 찾아 고치는 일에 대단한 재주가 있는 김경원B 권사, 늘 즐겁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 하는 윤정림 집사, 우리들의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김창원 안수집사, 자신의 생각을 항상 용감하게 피력하는 김명희 권사, 소중한 순간을 피사체에 멋지게 담으려 애쓰는 허영준 집사, 각 부의 소식들을 잘 정리하는 김재원 집사, 늦은 밤 두서없이 들어오는 원고를 살피고 정리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디자인샘, 그리고 조용한 미

소로 편집실을 이끌어 가시는 김석진 장로 이분들이 계셔서 제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제 인생 어느 날에 있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늘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의 빈 마음 안에 주님 향기를 기억하며 채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항상 미지근한 체온으로 흔적없이 살으려 했던 제게 아기 손톱만한 흔적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나이 더 들어 주님 흔적 밟아 가려는데 뉘우침으로, 사무쳐오는 그리움으로 제 남은 날들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피우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웹진동행 : 11월 핫클릭

가을 권사 수련회



글 | 박정옥 권사



지난 11월 6일 목요일 권사회 가을수련회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자연 속에서 진행됐다. 정성훈 목사님의 인도로 출발 예배를 드린 후 권사 70명이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탔다. 우리 버스에는 지난해 임직한 풋풋한 신임권사들과 올해 은퇴하는 권사들이 함께 탔다.

가는 동안 주방에서 봉사하느라 월례회나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임권사들에게 꼭 필요한 권사회의 지침들을 회장 김길자 권사가 알려주었고, 은퇴를 앞둔 고미자 권사가 권면의 말을 건넸다. 이후 선물 주기 넌센스 퀴즈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점심으로 닭갈비를 굽고 볶고 쌈 싸서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특별한 토마토 농장 돌담카페에서 오손도손 티타임을 가졌다. 우리 권사들은 강원도립화목원을 산책하며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했다. 인간으로는 흥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빚어주신 형형색색의 아름답게 물든 단풍과 숲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그리고 3단계로 제법 긴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호수를 지나 단풍으로 물든 숲을 감상하면서 정상에 올라 전망대에서 시원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누렸다. 행복이 충만한 수련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된 공동체인 권사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애쓴 권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함께 해주신 정성훈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서로 예쁘게 사진 찍어 주느라 수고한 모든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웹진동행 : 11월 포커스



글 | 김정미 교사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영아부 예배실은 과일, 풍선과 가을의 색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가을의 풍성함이 가득한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날부터 나진희 전도사님과 교사들은 정성껏 예배실을 준비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

예배 중간에는 영아부 아버지들의 연극이 있었다. 이야기 속 맹감이는 다른 예쁜 과일들을 부러워하며 투정을 부리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아버지들은 몇 주 동안 시간을 내어 연습하며, 단순한 공연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에 '감사'라는 씨앗을 심고자 사랑을 담아 무대에 올랐다. 연극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반짝였고, 예배실은 따뜻한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2부 활동으로는 아버지들의 찬양 울동이 있었다. 절도 있으면서도 즐거움이 넘치는 동작은 큰 호응을 얻었고, 앵콜 요청이 있을 만큼 분위기가 뜨거웠다. 요셉반 이재이 아버지는 '요계벳의 노래'를 불러 깊은 감동을 전했다.

모세를 떠나보내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이 담긴 찬양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울렸다. 또한, 몇 년 전 영아부 부모님이셨던 박노훈 집사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피아노 연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셨다. 박 집사님의 연주는 예배실을 예술의 전당 공연장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은혜로웠다. 모든 순서가 앵콜을 받을 만큼, 영아부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마지막 순서는 영아부 꼬마 예배자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한 반별 찬양대회였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드린 찬양과 울동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기를 소망한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후 아이들은 감사 나무에 스티커를 붙였고, 부모님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 제목을 적었다.

한 해 동안 영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5 가을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인해 받은 은혜와 다짐



글 | 정영준 안수집사

이번 11월 10일부터 시작된 가을 전가족 특별새벽기도회는 이미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특새의 주제가 같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물들어 간다는 의미는 정체성의 변화이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리고 세상에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말씀에 별써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물든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에 물들었고, 그 물들 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저의 삶이고 소망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순종과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물들어 가는 삶을 증거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당연히 특새에 개근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지만, 장애가 있어 특새를 제대로 참석하지 못 하던 큰 딸이 자기도 특새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말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

지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개근을 하였지만, 큰딸은 개근 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더욱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빛으로서의 삶과 제자 삼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과 섬김과 교제도 제대로 잘 감당하여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특새의 첫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고 마지막 날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잡았습니다. 특새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저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교구별 찬송경연대회를 마치며



글 | 오신원 안수집사 (예배부)

11월 16일 오후 예배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교구별 찬송경연대회를 했다.

이번 2025년 찬송경연대회는 지역별 총 6개 교구와 청년교구의 찬양이 있었고 아동부 연합 찬양대의 찬조 찬양이 있었다.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시에 오신원 안수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찬송경연대회는 김우권 장로의 기도와 이승구 담임 목사님의 인사 말씀 뒤에 1시간 여 동안 전 교인의 참여로 각 교구별 열띤 찬양 경연이 펼쳐졌다. 교구별 발표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순서를 정하여 제일 먼저 6교구부터 찬양을 시작했다.

6교구는 새가족 교구로, 찬양을 위해 흰색 티셔츠에 가슴에 하트를 달고 기쁜 마음으로 예쁜 율동과 함께 '추수감사 찬양'을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3교구는 김명희 권사와 장호선 집사의 치밀한 각본과 계획 지도와 준비로 담임 목사님 분장과 예수님 분장을 했다.

2교구는 60명 이상 되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불렀다.

청년교구의 '사친다노'라는 찬양이 교회 성전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120명 가까운 젊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율동과 힘찬 찬양은 영은교회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찬양이었다.

1교구는 흰색 상의와 하트 스티커를 붙인 흰 장갑을 다 함께 양손에 착용하고 '감사'라는 찬양곡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불렀다.

6번째 순서로 나온 4교구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로 물들어 갑니다' 두 곡을 귀여운 율동과 색깔 천을 다같이 들고 은혜의 찬양을 선사했다.

마지막 순서로 5교구는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양을 했다.

찬양 중에 화개장터라는 가요를 개사한 곡으로 영은교회를 소개하였다. 특히 이준희 목사님의 마지막 멋진 퍼포먼스로 큰 박수와 웃음, 감동을 주는 찬양을 올렸다.

찬조로 나선 아동부 연합찬양대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과 앵콜 곡으로 '주기도송' 2곡을 힘차게 불렀다.

각 교구 담당 목사님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박대원 목사님께서 심사평을 통해 전해주셨고, 4교구가 대상을 차지하여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축하와 상을 받았다.



4교구 대상

이번 2025년 교구별 찬송경연대회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녹여 낸 특별한 시간이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동부찬양대



1교구



5교구



2교구



6교구



3교구



청년부



글 | 장미애 목사

할렐루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28일(화) 목민교회에서 열린 제135회 영등포노회 목사임직예식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목사 임직자는 나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많이 당황하고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날의 감격이 지금도 밀려오는 듯합니다.

나는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게 되면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여 신학에 입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 현장은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사역의 경험보다는 아직도 사회 경험이 더 많은 나에게 교회 사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늘 사회와 비교되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보다는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결정하고 있음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나는 사사시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젊고 능력있는 목사들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나이에 목사안수를 받아야만 하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15년 동안 연락이 없던 직장 후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보니 목사 안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굴레였습니다. 굴레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면 되므로 오히려 더 자유하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목사'라는 직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부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사 안수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겸손히 무릎 꿩고 나아가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안수를 허락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복지부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글 | 이봉연 안수집사



이웃사랑과 섬김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영은교회 사랑의 쌀 나눔행사”와 “양평1동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비 지원 전달식”이 11월 9일 주일 1부 예배 후 본당 1층 행사장에서 있었다. 전달식에는 이승구 담임목사와 이준희 목사, 각 분과 장로, 남선교협의회 회장 이승훈 장로, 여선교협의회 회장 박정희 권사, 권사회 회장 김길자 권사, 이기숙 양평1동 자원봉사팀 고문, 외부인사로 김충길 시의원, 이순우 구의원, 임현호 구의원, 양평1동 복지팀장과 직원 5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교회 내 90가정과 대외기관 단체 7곳에

백미(10kg) 470포가 전달됐다. 또한, 양평1동에는 김장지원비로 500만원이 전달됐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6월부터 9월 초까지 22가정에 특별지원금 총 710만 원을 지원했다.

예수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는 언제나 사명자의 자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을 믿는다. 이 일에 겨자씨와 같이 미력하나마 귀한 역할에 충실한 우리 복지부와 영은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준희 목사 사임



글 | 윤정림 집사

이준희 목사님이 11월 16일에 사임했다. 2018년 1월 7일 교회에 부임하여 2025년 11월 16일까지 영은교회 교역자로 사역한 지 약 8년, 정확히는 2,870일의 시간이 흘렀다. 교회 부임 이후 3교구를 시작으로 2교구, 1교구, 5교구를 맡아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고, 관리분과와 더불어 예배분과, 선교분과, 교육3부 등도 담당했다. 목사님은 그 모든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특히 8년 동안 함께 성장한 젊은 부부공동체 ‘어울림’이 더 깊이 마음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준희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 리드컴(Lidcombe) 소재 ‘새벽종소리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며 11월 30일 첫 주 일예배 설교와 함께 목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새벽종소리 명성교회는 KPCA(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해외한인장로회) 태평양노회 소속이며, 장로교 통합측과는 자매교단이다. ‘새벽종소리’는 호주에 새벽예배가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초대 담임목사님이 지은 교회 이름이다. 또한, ‘명성교회’라는 교회명은 한국의 명성교회와는 무관하다.

이준희 목사님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된 교구별 찬송경연대회를 끝으로 영은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쳤다.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된 송별회에서 이승구 담임 목사님은 시편 86편 11절로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진리 위에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일심’으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다. 이에 대해 이준희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으며 일심(一心)과 순종 그리고 충성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겠노라고 화답했다.

이준희 목사님은 흥지혜 사모와 하율, 소율, 서울과 함께 11월 25일 호주로 떠났다. 이준희 목사님이 사역하는 새로운 길에 주님께서 계속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영은교회 모든 성도가 기원한다. (continued)





글 | 김재원 집사

성탄의 빛, 우리 마음에 다시 켜지다

올해는 유난히 어둠이 길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세상 소식도, 각자의 마음도 불안과 답답함으로 가득한 날들이 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위로가 11월 26일 수요예배 후 진행된 성탄트리 점등식에서 찾아 왔다.

예배 중 봉독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이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찾아오신 빛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는 말씀이다.
 샤론찬양대의 찬양과 영은원드양상불의 섹소폰 연주는 성전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웠다.

이승구 목사님은 “우리가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빛은 홀로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 가 서로 나누는 공동체의 빛임을 선포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 두려움과 어두움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참된 빛이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한다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선포와 함께 트리의 불빛이 점등

됐다. 그 순간,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도 밝은 소망의 빛이 켜졌다.

점등식 이후 1층 로비에서는 떡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오랜만에 함께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운 순간이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 남은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신다.

올해 성탄의 불빛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모든 자리에 소망의 길을 밝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찬란한 빛을 경험하는 복된 12월이 되기를 기도한다.



청년부 2026년 새 임원 선출



글 | 이기현 (청년2부 회장)

청년부는 10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2025년 청년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부 예배에서 이찬양 목사는 “사랑, 하나님의 일” (요일 4:7~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찬양 목사는 “우리의 사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가가 사역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이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도전할 것을 권면했다.

청년부 예배 후, 청년 1부와 2부가 각각 3층 비전홀과 7층 식당으로 나누어 총회를 진행했다. 청년 1부 총회에는 69명, 청년 2부 총회에는 94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는 청년부 자치회 회칙 「제3장 제7조」에 명시된 개회 정족수인 회원의 1/3을 상회하는 인원으로, 각 자치회 총회는 성원되어 개회하였다.

■ 청년 1부 자치회 총회

2026년 청년1부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출됐다. 임원 당선자들은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회장 – 최안진 / 부회장 – 이세빈 / 총무 – 구민지
서기 – 양준혁 / 회계 – 채홍일



2026년 청년1부
임원 왼쪽부터 :
최안진(회장),
이세빈(부회장),
구민지(총무),
양준혁(서기),
채홍일(회계)

■ 청년 2부 자치회 총회

2026년 청년2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김나연 / 부회장 – 이경준 / 총무 – 윤지윤
서기 – 한용수 / 회계 – 최은형



2026년 청년2부
임원 왼쪽부터 :
김나연(회장),
이경준(부회장),
윤지윤(총무),
한용수(서기),
최은형(회계)

2026년 청년2부 임원 당선자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자들은 예배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을 결단했으며, 청년들은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화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청년 1부 총회(비전홀)



청년 2부 총회(7층 식당)

청년 1부 회장 당선자 최안진 청년은 “부족한 저를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청년 2부 회장 당선자 김나연 청년은 “2025년 총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의 목적이 사랑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청년 1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총회에 임했으며, 당선자뿐만 아니라 임원 후보자로 나온 청년들까지 교회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은 청년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청년 2부는 투표마다 입후보 최소인원을 웃도는 청년들이 추천되었으며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 이었다.

모든 후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총회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2026년의 청년부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영은의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넘어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도전하겠다는 다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가능케 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 드린다.

2025년 하반기 장년신앙교육

– 배움으로 색을 입히다(2) –

2025년 하반기 장년신앙교육이 9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8주 과정으로 현장수업과 동영상 녹화 강의로 진행됐다. 중보기도자학교를 비롯해 6개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344명이 수강했다. 12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수료식을 하게 된다. 다음은 수료자들의 소감 글이다.



말씀을 읊조리다

강사 : 신요한 목사

말씀 맛집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

2025년 장년신앙교육 “말씀을 읊조리다”에 참여하면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말씀암송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말씀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읊조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과 신뢰>, <감사와 기쁨>, <인내와 소망>, <삶의 지혜와 거룩>, <기도와 간구>라는 여섯 가지 주제로 총 30구절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제 마음 밭에 말씀을 씨앗처럼 심어 잘 자라나길 바라며,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입술로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제 귀에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은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특히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해 고민하던 저에게, 제 삶을 통

해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장혜미 집사

신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삶 속에서 말씀을 읊조려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맛있는 말씀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본 사람과 같습니다. 한 번 맛보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셨지요.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말씀 암송 강의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이 말씀 맛집에 다녀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역사탐방(강경&익산)

강사 : 정성훈 목사

강경, 익산, 논산까지 이어지는 선교역사를 배우다

지난 8월, 무더위 속에서 참여했던 한국교회역사 그랜드 투어에서 손산문 목사님의 강의와 현장탐방의 감동이 지금도 여운이 남아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이번 장년신앙교육 <한국교회역사탐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평양을 배경으로 한 초대선교사님들의 활동을 이북사투리로 풀어낸 소설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 탐방이 강경, 익산, 논산까지 이어지는 금강 주변의 선교역사와 남편의 고향인 전라북도의 믿음의 유산과도 연결되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신앙 선배들의 뜨거운 헌신과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배우고 나니 실제 탐방 때 장소들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설명도 훨씬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강의 신청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

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듯이, 한국 교회도 일제 강점기의 고난 속에서 도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된 침례교회와 침례신학대학으로 이어지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믿음을 지켜낸 교회, 총칼 앞에서도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 3·1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발자취는 우리 민족의 숨결이자 신앙 선배들의 숭고한 흔적이었습니다.



김성주 목사

정성훈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증거를 배우고 나니, 이제 그 현장을 직접 걸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며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은혜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팀 켈러와 함께하는 고전산책

강사 : 최광주 목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을 찾았다

영은교회의 장년신앙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고전산책’을 수강하게 되었다. 이번에 읽은 책은 팀 켈러의 『인생 질문』 이었다. 표지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이 수업을 신청한 내적 동기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나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시간을 통해 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본질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어 전 세계 독자에게 깊은 통찰을 전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회자다. 이 책은 성경 속 예수님을 만난 일곱 인물을



안정옥 성도

다룬다. 나다나엘을 시작으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아마 “그래서 너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았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나의 답은 ‘YES’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첫째는 정체성이다.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관계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안정된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복음에 두어야 하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은 성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죽음에 대한 시각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함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죽음을 직면할 때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깊이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마지막은 용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힘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의 과정이기도 하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이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크게 달라진 것 없어 보여도 내면의 영적 충만함은 은혜로 가득 차 넘쳤다. 함께 수업을 들은 집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용히 듣고 받아주신 최광주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음에 호기심이나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한다. 



예수동행일기



강사 : 박대원 목사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튼튼히 세워준 예수동행일기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목사님께서 장년신앙교육 신청을 권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고, 주말에 일 부라도 신앙적인 시간으로 할애하면 좋을 것 같아 <예수동행일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대원 목사님께서 서두에 강의해 주시는 신앙교육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쭉직계 강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관계,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등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기를 튼튼히 세워주시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반면, 나 자신에 관해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가시적인 큰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지

만, 교재에도 적혀 있듯이 <예수동행일기>는 옳은 방향이기에 낙망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는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 아는 것에 그치고 행함이 부족한 ‘나’ 이기에 약간의 낙심도 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함께 참여한 남편과 <예수동행일기>를 함께 기록하기를 소망합니다.



권민애 집사

신약성경 신책

강사 : 김태섭 목사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이다

2025년 가을, 장로신학대학교 김태섭 교수님의 〈신약성경신책〉 강좌를 택해서 수강하는 동안 참으로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강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 2강 요한복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3강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4강 요한계시록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11월 2일 주일 오후예배 시에 5강 〈우리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현장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신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언급이 없던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으로 그의 신성을 강조했다고 대조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 강의도 선명하게 풀어주셔서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은교회 본당에서의 마지막 강의는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이다.” 나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둘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구약성경신책’ 강좌도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정림 집사

2026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상담 실시



글 | 나필균 원로장로

나필균 원로장로는 의료보험 업무를 1977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끝으로 38년간 국민건강보험 전문가로 은퇴했다. 장로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을 비롯한 서울시장상 2회, 보건복지부장관상 3회,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 분야의 권위자인 나 장로님은 교회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중 보험급여(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등)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한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2026년 1월 둘째 주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일 12시에 교회 2층 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다. 다음은 나필균 장로의 소개글이다.

| 영은소식

저는 1952년(호적 1954년) 9월 4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 누이동생과 세 식구는 남의 집 셋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열심히 출석하여 연말에 시상으로 노트와 연필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받은 학용품을 사용하여 큰 도움이 되었고, 중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1969년 1월에 서울 영등포 친척 집에 올라와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하며 학비를 모아 종로구 계동에 있는 대동상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학업을 하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디지털대학, 고대경영대학원, 서울대보건대학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검찰 공무원에 합격하여 1972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973년 1월 5일에 영은교회에 등록하여 청년회 활동 등을 하면서 경기노회 청년연합회장, 영등포노회 교사, 중고등부 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1990년 4월 22일에 집사 안수와 1996년 5월 12일에 장로 장립식을 했습니다. 장로로 27년간 시무하다가 2023년 12월 31일에 은퇴하면서 원로장로로 추대됐습니다.

1977년 7월 보수가 더 많은 해태제과공업(주)에 입사하여 총무부 인사과에서 의료보험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므로 직장의료보험, 공교의료보험, 직장공동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이 2000년 7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해태그룹의료보험조합에서 1986년 11월 1일부로 1급으로 승진하여 통합 전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후 동작지사장, 평택, 영등포, 영등포남부, 강동, 은평, 광진, 화성, 인천계양지사장으로 여러 곳에서 근무하다가 영등포남부지사장을 끝으로 퇴직했습니다. 이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과 김포시 최초 부부 공공후견인 활동과 치매센터에서 가족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니어 상담실장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상담하면서 교회에서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교회역사탐방 : 강경 & 익산

〈한국교회역사탐방〉이 지난 11월 29일(토)에 강경과 익산에서 진행됐다. 정성훈 목사님의 5회에 걸친 온라인 교육을 마친 수강생 90명은 당일 가이드 손산문 목사님(영천 자천교회 담임목사, 영남신대 겸임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교회의 역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함께 감동을 나눴다. 옥녀봉, 강경침례교회, 강경성결교회, 대장교회, 두동교회, 제석교회 등을 탐방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튼튼히 세워준 예수동행일기

글 | 나영집사

11월 29일 토요일, 늦가을 따스한 날에 수학여행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강경-익산 교회 역사 탐방길에 올랐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 암울했던 시대의 수탈 속에서도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었던 교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가슴 벅찬 감동에 젖었습니다. 특히 1920년대, 피폐해지려던 농촌을 굳건히 지켜냈던 지역 교회들의 혼신은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땅의 농촌교회가 여전히 우리의 온정 어린 손길을 필요로 하며, 한국 교회의 찬란한 역사가 반드시 기억되고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띠지 않는 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교회의 역사적 사업이 후대에는 더욱 선명한 기적의 이야기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손산문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배우는 거룩한 가르침”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단순히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열두 돌’처럼 생생한 증

거물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거룩한 신앙 전승의 사명”이라는 말씀은 강한 울림이 되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거룩한 여정을 함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귀한 1조 조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역사의 순례를 넘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동교회에서

선열들의 희생에 고개가 숙여졌다

글 | 이상의 은퇴장로

날씨가 맑고 좋은 날 서울서 버스로 3시간을 달려 강경침례교회(전 성결교) 앞에 도착 하니 가이드 손산문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경침례교회가 감리교회로 바뀌게 된 사연을 듣고 44m 가파른 옥녀봉으로 올라갔다. 강경 시내가 사방팔방 내려다보였다. 옥녀봉 정상에는 조선시대 통신수단

이었던 봉화를 밝혔던 봉수대가 있었다. 그곳에는 순교자와 선교사들의 비문과 사진 및 설명이 전시되어 있었다.

교회 사적 42호로 지정된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인 강경침례교회 예배당도 만날 수 있었다. 한옥 초가집 모습을 한 예배당은 소담하고 아름다웠다. 손 목사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얹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우리 일행은 익산에 있는 대장교회를 찾아갔다. 대장교회는 지리적 특성으로 일제의 억압과 많은 수난 속에서도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역시 교회 사적으로 등재되었다. 초기 도시선교는 병원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강경과 익산은 곡창지대로 농업을 기초로 복음 사역이 펼쳐졌다.

이어 방문한 두동교회는 총회사적 제3호로 지정된 교회로 초기에 'ㄱ' 자형의 한옥 예배당으로 건축됐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으로 교회를 지을 재목이 없어 짓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로 떠내려온 재목으로 교회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금산교회와 함께 'ㄱ'자형의 두동



옥녀봉 성지(11.29)

교회는 남녀가 구분해 예배를 드린 유일한 교회로 보존되고 있다.

익산 웅포면에 있는 제석교회는 창립 120년 된 교회로 25대 담임목사인 정경호 목사님이 영은의 성도들을 위해 교회 역사를 친히 소개해 주었다. 300명이나 되던 성도가 이제는 많은 분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겨우 80여 명만 교회에 남아있다고 한다. 목사님은 오늘날 농촌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매우 소홀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한국 교회의 역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승될 수 없다고 걱정했다. 나 역시 한국교회탐방을 해보니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듣고 체험하니, 선열들의 희생에 고개가 숙여지고 큰 감동이 밀려왔다.

사라왁 쿠칭의 기독교 역사, 부흥, 그리고 선교의 현재

글 | 구용희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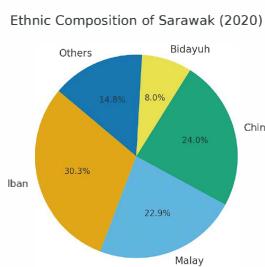
1. 서론

사라왁(Sarawak)은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주이다. 인구는 약 280만 명이며, 다야, 이반, 비다유, 말레이, 중국계 등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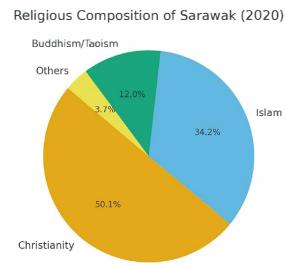
202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사라왁의 인구 중 약 50.1%에 해당하며, 말레이시아 전체에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많은 주라는 점에서 역사적 · 신학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라왁 기독교는 서구 복음이 이식된 형태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재해석된 신앙의 결과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사라왁 쿠칭(Kuching)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의 형성과 확산, 부흥운동을 살펴보고, 도시화되는 선교지의 현재를 살펴보며, 사라왁 쿠칭 선교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사라왁 인종분포



사라왁 종교분포

2. 사라왁의 역사

사라왁은 1841년 ‘화이트 라자’ 왕조인 영국의 제임스 브룩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브루나이의 술탄으로부터 사라왁을 하사받은 브룩과 그의 후손들은 약 100년간 사라왁을 다스렸다. 브룩 왕조는 서구식 통치 제도와 교육 체계를 도입했고 선교사들은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초기 복음화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에 의해 확산되었다.

그러나 복음은 사회·지리적 제약에 의해 확산의 한계를 가졌다. 내륙 지역의 경우, 다양족은 열악한 교통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복음의 확산이 더 제한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점령과 영국 보호령 전환기를 거치며 사라왁은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복음은 원주민 내에서 새로운 사회적 결속의 도구가 되었다.

1963년 사라왁이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된 후 연방 정부의 이슬람 중심 정책과 사라왁의 종교적 다양성이 긴장을 형성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한 사라왁 주 헌법은 기독교가 공공 영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라왁 교회들은 기독교의 토착화와 자립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BEM에서 SIB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3. BEM 선교와 성경적 자립 모델

보르네오 복음주의 선교회(이하 BEM)는 1928년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라왁 내륙

복음화가 사역의 목표였으며, 이들은 교단 확장이 아닌 복음의 순수성과 공동체의 자립을 강조하였다. BEM의 선교 철학은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앤디옥 교회의 모범과 닮아 있다. 이러한 성경적 자립은 BEM 선교의 핵심 원리였으며, 현지 신자들을 통해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도록 이끌었다.

BEM은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농업 기술 지원 등 공동체의 실제 필요와 선교 사역을 연결했다. 이를 통해 복음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 수용”的 형태로 자리 잡도록 도왔고, 복음의 토착화와 공동체 자립이라는 선교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제임스브룩



SIB 교단마크

4. SIB 교단의 탄생

1959년 BEM은 수십 년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며 그 열매를 현지 교회에 이양했고, SIB교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는 외국 선교사 중심 교회에서 토착민이 주체가 된 교회로의 결정적 전환이었고, 사라왁 교회사에서 새로운 시장이었다.

SIB는 자립·자치·자전이라는 삼자 원리를 초기부터 철저히 실천했다. 특히 지도자 양성은 외국인 의존보다 현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성경과 찬송가도 토착 언어로 번역되었다.

SIB는 이후 미리, 시부, 바리오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들은 단순 지교회 설립이 아니라 각 지역 공동체의 언어·문화·경제적 여건을 따라 신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자립적 모델은 사라왁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 지역의 토착 교회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SIB의 시작은 교단 행정의 독립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는 그 땅의 백성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된 교회 정체성의 선언이었으며, 현지 공동체의 언어·문화·삶의 방식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토착화의 실천이었다. 이제 SIB는 받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나아가는 선교적 전환의 계기를 얻었다.

5. 1973년 바리오 부흥운동

1973년 보르네오 고원지대 바리오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사라왁 교회사에 사회적·신학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운동은 SIB 현지 지도자들의 자발적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개·화해·죄의 고백·예배의 회복이 연속되며 교회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변화했다.

바리오 부흥운동을 통해 SIB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스스로 개신하는 교회”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는 SIB의 선교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바리오 부흥운동은 사라왁 기독교의 내적 자립과 영적 자생력을 보여준 사건이며, BEM 선교 신학이 공동체 속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6. 사라왁의 현재

2024년 현재 사라왁의 인구는 약 280만 명이며, 도시화율은 약 70%, 쿠칭은 행정·경제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 중이고, 청년 인구는 약 40%를 차지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 농촌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점차 도시형 교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신앙의 전달 방식도 가정 중심에서 청년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라왁 주정부는 2017년 UNIFOR를 설립해 비이슬람 종교 단체의 활동과 시설 건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까지 누적 475백만 링깃이 투입되었고, 상당 부분이 교회 교육 시설과 농촌 예배당 보수에 사용되었다.

청년 세대의 신앙 약화와 농촌 교회의 인력 공백 심화, 간헐적 종교 간 긴장 속에서 교회는 선교와 공공 참여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SIB와 BEM은 청년 리더십 개발, 신학교육 현대화, 미디어 복음화, 사회봉사 중심 선교 등 다양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7. 사라왁 선교의 과제

첫째, 도시 청년층의 신앙 회복과 공동체 재구성이다. 도시 청년 세대는 글로벌 문화·디지털 네트워크·다원 가치 속에서 신앙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으나, 교회의 구조는 농촌 공동체 중심에 머물러 세대 간 신앙 간극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예배 형식과 공동체 구조를 도시적 삶의 리듬과 언어로 재번역해야 한다. 출석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와 교제가 일어나는 네트워크형 공동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삶의 자리가 곧 선교의 자리”라는 선교적 교회의 핵심 비전을 구현하는 길이다.

둘째, 원주민 신앙의 계승과 토착 신학의 심화가 필요하다. 사라왁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현지 언어·문화 속에 내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지만, 세대 간 신앙 전승 약화와 농촌 교회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다. 신앙의 뿌리를 되살리고 단순 보존을 넘어 오늘의 언어로 복음을 재해석·전승하는 토착 신학 간성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 선교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사라왁 선교는 다양한 국내·해외 교단과 단체가 활동하는 다층 구조다. 열정의 결실이지만 사역 중복과 비효율이라는 한계도 드러난다. 앞으로는 개별 확장보다 교단·단체·현지 교회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동일 지역에서 보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넷째,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선교적 삶이 요청된다. 사회참여형 선교는 복지 실천이나 개인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다. 직장·학교·시장·가정이 곧 선교지가 되며, 같은 직업군의 성도들이 직업 기반 셀그룹으로 모여 전문성을 나누고 사회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교회는 훈련·파송을 통해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야 한다.

8. 결론

사라왁의 기독교는 외래 선교 유입에서 시작되었으나, 토착 공동체의 신앙으로 성장했다. 복음은 그 땅의 언어와 문화 속에 뿌리내린 삶의 체계가 되었고, 이는 복음의 토착화가 단순한 문화 적응이 아니라 성육신적 선교의 사건임을 보여준다.

BEM에서 SIB로 이어지는 사역의 계보는 “받는 교회 → 보내는 교회”라는 선교적 전환점을 드러낸다. 초기 복음을 수용한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변화한 것은, 사라왁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숙한 주체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라왁 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초기 복음의 빛을 되갚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결국 사라왁의 기독교 역사는 외부에서 주어진 신앙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석·실천된 복음의 여정이었다. 사라왁 교회의 미래는 과거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토착 공동체의 신앙이 세계 선교의 주체로 서는 일, 그리고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이 실제적 변화로 드러나는 일이다. “복음이 피어난 땅에서 다시 복음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교회언어 바로잡기

어느덧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한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른 교회 언어로 우리 영은교회를 더욱 은혜롭고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글 | 최광주 목사

‘수석’ 장로
(안수집사, 권사)
(×) → ‘선임’
장로(안수집사,
권사) (○)

‘선임’ 이란 먼저 임직했다는 뜻이지만 ‘수석’은 ‘등급이나 직위에 서 맨 위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임직 한 장로(안수집사, 권사)를 ‘수석’ 장로(안수집사, 권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임’ 장로(안수집사, 권사)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찰집사’
(×) →
‘관리집사’
(○)

‘사찰’ 이란 조사하여 살피는 일이라는 뜻이므로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찰집사’라는 말은 ‘관리집사’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결식, 고별식’
(×) →
‘장례예식’ (○)

‘영결식’ 이란 영원히 이별하는 의식이란 뜻이며, ‘고별식’은 친척이나 친족들이 고인과 마지막으로 결별하는 의식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영결식, 고별식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교리와는 맞지 않으므로 ‘장례예식’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천(召天)하셨다’ (×) →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 (○)

‘소천(召天)하다’라는 말은 ‘하늘을 부르다’라는 뜻으로 어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천하셨다’라는 말은 ‘운명하셨다, 별세하셨다’라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복(冥福)을
빕니다’ (×)
→
‘하나님의 위로
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 받기 바랍
니다’ (○)

‘명복(冥福)’ 이란 말은 죽은 후에 명부(冥府)에 가서 좋은 심판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뜻으로 불교의 교리를 내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 받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註）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 목사 허남기
 담임 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에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천양 장미애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김영락 김찬영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손예지 정희수
 파송선교사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ue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